

大學에서의 相對評價

무엇이 問題인가

李

鍾

昇 (忠南大 教育學科)

I. 序 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대학졸업정원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할 때 상대적 평가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전에 있었던 入學定員에다 사전에 탈락률을 정해 놓고 신입생수를 증원시킨 졸업정원제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일부 학생들을 강제로 중도 탈락시키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도 탈락을 시키는 수단은 주로 學業成績에 의한 것이므로, 학업성적의 상대적 평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적등급을 매기고, 학사정계를 대폭 강화시켜 유급 또는 제적 등의 방법으로 졸업정원 이외의 추가 입학자들을 제거시키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 대학에서는 교과목의 특성이나 해당 학습집단의 특성 등은 별로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비율에 맞추어 학생들의 성적등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학업성적의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본래 졸업정원제에서 의도한 최대 목표는 勉學 雰圍氣 조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입학만 하면 당연히 졸업이 보장되었던 우리나라 종래의 대학분위기를 진장시켜 공부하는 대학으로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순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많이 변모·퇴색되었다. 卒業定員制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相對評價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한 예로 서울대학교의 성적처리 지침을 보면, 성적등급의 分布比率를 A : 20%, B : 30%, C : 40%, D 이하 10%로 정해 놓고, 성적 제출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성적등급 분포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대평가의 학습체제하에서는 教授目標의 달성여부와는 상관 없이 획일적으로 학생들을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로 구별짓도록 강요한다. 그러므로 학생들간에 필요 이상의 치열한 競爭을 유발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그 자체보다는 상대적

등위에만 집착하도록 만든다. 또한 성적등급은 단순히 특정 집단내에서 상대적 위치를 알려 줄 뿐, 수업목표의 달성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대학에서 상대평가의 실시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의 일부인 셈이다.

## II. 規準指向評價와 目標指向評價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데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집단 내에서 서열상으로 몇 계가 되는가 또는 특정한 규준집단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평가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미리 설정해 놓은 教授目標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에 관심을 두고 수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입장이다. 전자는 상대평가 또는 規準指向評價(norm-referenced evaluation)라고 하고, 후자를 절대기준평가 또는 目標指向評價(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라고 부른다.

개인차의 변별을 주목적으로 하는 규준지향평가의 원리와 절차는 심리측정이론 중 규준지향적 측정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측정이론은 역사적으로 지능이나 적성과 같은 인간 특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個人差의 發見을 중시한데서 비롯되었다. 각종 標準化 心理檢査는 규준지향적 측정이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규준지향평가에서는 수업목표의 달성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적이 正常的 分布를 이룰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판정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따라서 이 평가방법은 개인차를 변별해야 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규준지향적 평가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학생들의 學習動機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평가한 성적은 집단내의 상대적 위치만을 알려줄 뿐이며, 성적의 비교도 해당 集團內에서만 가능하고, 집단이 다르면 서로 다른 규준에 의거하여 성적을 평정하였기 때문에 의미있게 비교하기 어렵다. 상대적 평가를 강조하게 될 경우, 수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

시켰느냐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게 되고, 교육의 質的 變化에 민감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이상의 경쟁심을 조장시켜 학생 상호간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目標指向評價 방식에 의한 학업성적의 평가는 미리 정해 놓은 수업목표의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수업목표의 달성 여부 또는 도달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평가방법에서는 한 집단내 다른 학생들의 성적은 고려할 필요 없이 이미 설정해 놓은 수업목표의 기준에 얼마나 도달하였느냐를 평정하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적의 非正常的 分布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 한 학습과제의 수업활동이 끝난 뒤에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할 결과가 정상분포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정말로 성공적인 教授-學習活動이 전개되었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느 일정한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아주 형편없는 수업에서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目標水準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지향평가의 결과는 수업목표의 도달도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 즉 성적평가의 결과를 보고 수업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으며, 達成된 목표는 무엇이고 未達成 목표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목표지향평가의 학습체제에서는 상대적 석차보다는 知的 成就 그 자체를 강조하고, 경쟁보다는 協同學習을 중시하기 때문에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평가방법에서 무엇보다도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업목표의 成就基準를 설정하는 일이다. 만족할 만한 합리적 성취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의상 임의로 목표의 성취기준을 설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규준지향평가와 목표지향평가의 방법은 그 적용 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평가를 할 때는 그 평가의 目的과 必要에 알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다.

### Ⅲ. 두 가지 評價方法의 折衷

성적평가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진전상황에 관한 情報提供의 기능이다. 성적평가는 학습진전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教授-學習過程에 피어트백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을 動機化시키는 기능이다. 성적평가의 방법 여하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흔히 교수들은 학습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성적평가를 이용하는 수가 많다.

셋째, 選拔·分類·豫言의 기능을 성적평가는 가지고 있다. 교내에서 장학생이나 우등생을 선정할 때, 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취업희망자를 추천할 경우에 성적은 중요한 준거자료로 쓰인다.

이상과 같은 성적평가의 기능이 시사하는 바는, 학업성적의 평가에 있어서 기준지향적 방법과 목표지향적 방법을 절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기준지향평가와 목표지향평가는 서로 다른 目的과 長短點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재 대학에서 상대평가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으로써 목표지향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목표지향평가 방법은 그것대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가령, 목표지향평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교수들 간에 成績等級에 대한 基準이 제각기 달라서 교과목간, 학과·계열간에 심한 성적등급분포의 不均衡을 초래하기 쉽다.<sup>1)</sup> 또한 목표지향 평가에서는 실제로 수업목표에 도달되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끈질긴 요구에 부응하거나 교수의 안이한 사고로 인하여 성적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소위 성적등급인플레이(grade inflation) 현상이 나타나다고 한다.<sup>2)</sup>

따라서 이 두 가지 평가방법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성적등급의 분포비율을 정해 놓고 기초과정과 전공과정, 교과목의 수강인원수 등에 따라 응용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을 제언한다.

〈표 1〉 成績等級의 分布比率

등	급	A	B	C	D~F
비	율	20%	30%	40%	10%
각 등급 분포	비율의 증감폭	기초과정 : ±5%			
		전공과정 : ±10%			

교양과목과 같이 많은 수의 학생들을 여러 교수들이 分班하여 가르치는 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성적등급이 어느 정도 均衡 있게 분포되도록 하고, 학생들간의 優劣을 변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초과정에서는 위에 제시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을 다만 5% 이내의 증감을 허용함으로써 좀 더 기준지향평가의 목적에 가깝도록 성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공과정에서는 10% 범위내에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업목표의 달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한 目標指向評價가 어느 정도 가능토록 한다. 한편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교과목이나 교련과 같은 특수한 과목의 성적평가는 구테여 상대평가의 방식을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담당교수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업성적을 평가할 때는 기준지향이나 목표지향이나 하는 평가방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평가의 자료로 삼느냐 하는 문제와 어떻게 그러한 評價資料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수집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평가의 妥當性和 信賴性を 높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1) K.F. Geisinger, & W. Rabinowitz,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college faculty in grading."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980, 1, pp. 20-27.
- 2) R. Birnbaum, "Factors related to university grade infl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977, 48, pp. 519-539.